

전반전 - 답안 구성 원리 배우기

성균관대식 1번 문제 (요약형) 공략

1. 문제 유형	
2015 인문 1교시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5 인문 2교시	<제시문 1> - <제시문 5>는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5 인문 3교시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015 인문 모의	<제시문 1> ~ <제시문 5>는 '세계화'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 <제시문 1> ~ <제시문 5>를 상반되는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로서 항상 1번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2. 채점 기준	
A (25점)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 하고 명칭 (ex. 결정론 vs 도구주의)을 적절히 부여 하였으며,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제시문 간의 미묘한 관점차이까지 고려 하여 잘 기술한 답안
B (20점)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였거나 부여한 명칭에 감점 요인이 있는 답안
C (15점)	제시문의 분류를 올바르게 하고 분류 명칭도 제대로 부여했으나,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요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답안
D (10점)	분류는 좋았으나 명칭에 감점 요인이 있고 요약이 잘못된 답안
E (5점)	제시문 분류에 실패하고 서술을 제대로 못한 답안

3. 전형적 답안 구조 (학교 측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토대로 작성)					
※ 전형적 답안 구조					
1문단	① 제시문 1~5는 A를 기준으로 크게 B와 C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① 제시문 1, 2, 3은 B에 속하는 글로서, D라고 보는 입장이다. ② 제시문 1은 E라고 본다. ③ 제시문 2는 F라고 본다. ④ 제시문 3은 G라고 본다.				
3문단	⑤ 제시문 4, 5는 H에 속하는 글로서, I라고 보는 입장이다. ⑥ 제시문 4는 J라고 본다. ⑦ 제시문 5는 K라고 본다.				
※ A~K에 대한 설명 (2015 인문 1교시 1번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2015 인문 1교시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A	문제의 발문에서 나온 기준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 제시문 1~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B와 C로 분류할 수 있다.				
B, C	채점기준에서 말하는 명칭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행복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입장과 ‘행복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이 각 B와 C에 해당 할 것입니다.				
D, I	각 입장에 대한 일반적 서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때 각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론들을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행복 상대주의 (D)</td> <td>행복은 개인의 경험, 의지, 내면 등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을 달리한다고 본다.</td> </tr> <tr> <td>행복 보편주의 (I)</td> <td>행복은 이성 혹은 진화의 결과에 의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td> </tr> </table>	행복 상대주의 (D)	행복은 개인의 경험, 의지, 내면 등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을 달리한다고 본다.	행복 보편주의 (I)	행복은 이성 혹은 진화의 결과에 의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행복 상대주의 (D)	행복은 개인의 경험, 의지, 내면 등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을 달리한다고 본다.				
행복 보편주의 (I)	행복은 이성 혹은 진화의 결과에 의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E, F, G, J, K	각 제시문의 핵심어로서 제시문의 내용을 한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팁은 작은따옴표 (‘’)표시가 들어간 단어가 그 제시문의 핵심어라는 것입니다. 위의 채점기준에서 보면 알 수 있듯 핵심어를 넣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이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항상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학교 측 발표 모범답안과의 비교!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행복 상대주의'와 '행복 보편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②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는 '행복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행복은 개인의 경험, 의지, 내면 등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을 달리한다고 본다.
	③	<제시문 1>의 칸트는 개인의 경험과 윤리의식, 정치성향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한다.
	④	<제시문 3>은 행복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
	⑤	<제시문 5>의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이 외적 조건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한다.
3문단	⑥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행복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행복은 이성 혹은 진화의 결과에 의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⑦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을 잘 활용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⑧	<제시문 4>는 행복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 쾌락추구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4. 1번 문제의 중요성	
[문제 2]	<자료> 1은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계층 간 사회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문제 3]	한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을 들 수 있다. <자료 2>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 추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5> 입장에서 이 추세를 평가하시오.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보기>의 '생활임금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5점)
-> 문제 2~4는 모두 문제 1의 두 입장과 논지를 활용해서 풀어야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 각 입장의 명칭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거나 입장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했다면 문제 2~4를 제대로 풀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 1이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제발 기억해!
성균관대 1번 문제는 항상 같은 유형으로 출제되므로 많은 학생들이 이에 익숙하기에 다른 학생들과 크게 차이를 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The논술 시리즈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위와 같은 전형적인 답안 구조를 외워서 제대로 된 명칭을 부여하고 각 제시문을 핵심어를 넣어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25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10분 안에 풀길 바랍니다.

6.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2016 성균관대 모의 인문		
※ 기억나니?		
-> 성균관대 채점 기준에 따라 A(25점)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명칭부여, 핵심어로서 각 입장 한 문장 요약이 가장 중요!		
제대로 된 명칭부여	제대로 된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B(20)밖에 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원칙 1. 최대한 많은 기출을 풀어서 기출에 나온 명칭을 모두 외우자! 어차피 명칭들은 계속 반복된다. 예) 기능론/갈등론, 보편성/상대성 등	
	원칙 2. 발문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바로 그것으로써 명칭을 부여하면 된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미 발문에서 '개체와 집단 중 어느 쪽이 지혜로운가'라는 기준을 부여했으므로 바로 각 명칭이 '개체이성지성'과 '집단이성지성'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원칙 3. 만약 명칭을 부여하기 힘든 경우 제시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각 제시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 단어를 명칭으로 파악하면 된다.	
한 문장 요약	어차피 한 문장으로만 각 제시문들의 핵심어를 요약하면 된다!	
	원칙 1. 보통 글의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제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만 먼저 본다. 어차피 모든 한 문장으로 요약할건데 모든 문장을 다 볼 필요는 없다. 원칙 2. '핵심어'를 포함하여 요약해야 하므로 글에 작은 따옴표로 표시된 단어가 있는가를 살핀다. (이번 문제에서는 제시문1의 '전문가', 제시문 3의 '제한적 합리성', 제시문 5의 '행동신호'등이 그 예이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개체와 집단 중 어느 쪽이 지혜로운가'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1) 기준설정		
기준	개체와 집단 중 어느 쪽이 지혜로운가.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개체이성	VS	집단이성

<제시문 1>	
<p>지성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식창조이며,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소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탈근대화 시기에 전문가의 위상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전문가의 능력이 쇠퇴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현실 속에서 문제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제기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즉, 제기된 문제가 정확하고 엄밀하다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제기가 필수적이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전문가의 가치는 오히려 이전 시대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전문가이다. 또한 전문가가 제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전문가이다. 결국 대단히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전문가적 지식 혹은 지혜는 더욱 가치를 갖게 된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중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판단은 무용하다는 맥케이(Mackay)의 1932년의 지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p>	
관점 분류	개체이성
한 문장 요약	<제시문 1>은 전문가만이 지식을 창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판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
<제시문 2>	
<p>개인들이 모일 때마다 곧바로 군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서로 뒤섞이고 합해져서 변모한다. 그들은 자신의 성질을 억누르는 공통된 성질을 획득하며, 자신들의 개별적인 의지를 침묵시키는 집단 의지에 복종하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실제적인 위협을 나타내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휩쓸리고 있다고 느낀다.</p> <p>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항상 움직이며 우글거리는 이 사회적 동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무턱대고 자신을 던지기 전에 뒤로 살짝 물러서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공포증을 느낀다. 이러한 반응들은 군중의 힘과 그것이 일으키는 육체적인 반향(反響) 그리고 그 반향을 통해서 사람들이 군중에게 있다고 추정하는 효과를 증명한다. 모파상(Maupassant)은 필적할만한 학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 효과를 훌륭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p> <p>“게다가 또 하나의 다른 이유에서 나는 군중을 싫어한다. 나는 극장에 들어갈 수도 공적인 축제에 참가할 수도 없다. 그곳에서 나는 곧 마치 저항할 수 없는 신비한 영향력과 전력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괴상하고 참을 수 없는 불편함과 굉장한 신경질을 느낀다. 그리고 사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파고들려고 하는 군중의 혼과 싸운다. 나는 사람이 혼자서 살 때는 지성이 강해지고 향상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 지성이 약해지고 쇠퇴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사람들과의 접촉, 널리 퍼져 있는 관념,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 듣고 들리며 또 대답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은 사고에 영향을 준다. 여러 관념들이 머리에서 머리로, 집에서 집으로, 거리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도시로, 민중에서 민중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지면서 어떤 수준이 확립되는데, 그것은 수많은 개인의 집합체 전체가 만들어 낸 지성의 평균이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갖고 있는 자질, 즉 지적인 창의력, 자유의지, 분별 있는 성찰력, 심지어는 통찰력 등의 자질이 그가 많은 사람들 속에 섞이면 일반적으로 곧 사라진다.”</p>	

관점 분류	개체이성
한 문장 요약	<제시문 2>는 집단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자유의지를 잠식한다고 말하며 개체의 이성을 집단의 이성보다 우위에 둔다.
<제시문 3>	
<p>개인의 의사결정은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익숙한 방식을 거쳐서 '그 정도면 됐다'는 수준에서 대부분 마무리 된다. 즉, 그만하면 됐다 정도인 '최초의' 대안이 해결책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안의 개수는 너무나 많은데 반해 개인의 인지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성과 합리성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개인은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허버트사이먼(Herbert Simon)이 말했듯이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불완전한 판단을 적절한 방법으로 합치면 집단의 지적 능력(collective intelligence)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낼 때가 많다.</p> <p>어떤 상황에서 집단은 놀랄 만큼 똑똑하며, 때로는 집단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특별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을 지배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구성원 대부분이 특별히 박식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단의 지적 능력이란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볼 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한 가지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개별적 지능의 합과는 다르다.</p>	
관점 분류	집단이성
한 문장 요약	<제시문 3>은 개인은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 살고 있기에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집단은 개인들의 불완전한 지식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시문 4>	
<p>도덕이나 종교는 인간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뒤르케임(Durkheim)의 말처럼 집단정신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 때문에 한 개인에게는 불합리하고 자가당착인 것처럼 보이는 도덕이나 종교는 그 집단이나 사회의 통합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커지고 분화되면서 발달함에 따라 옛 집단정신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폐쇄적인 원리나 율법이라는 원 안에 갇혀 있는 한 그 사회는 이 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으며, 이러한 종교와 현실이 접촉된 부분 부분에는 독단적인 종교의 자가당착적인 면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자가 당착은 지능을 가진 개인의 눈에 놀랍고 모순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이제 지능을 가진 개인은 종교를 가능케 하는 힘을 강압으로 느끼게 되며 현재의 도덕 또한 억압으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여 새로운 도덕이나 종교의 원리를 창안해낸다. 이 창조의 근원이 생의 약동이다. 생의 약동은 특별히 뛰어난 개인, 뛰어난 신비가나 영웅으로부터 분출하여 지금까지 폐쇄적이고 순환적인 정적 도덕과 종교의 테두리를 부수고 전진한다. 어느 시기든지 이를 구현한 예외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스도교의 성자들 이전에 인류는 그리스의 현인들과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불교의 아라한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을 보아 알고 있다.</p>	

관점 분류	개체이성	
한 문장 요약	<제시문 4>는 특별히 뛰어난 개인만이 기존의 종교나 도덕의 부조리를 억압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제시문 5>		
<p>집단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 곤충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데 뛰어난 지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곤충 개체는 집단과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 사회적 곤충들은 도대체 어떻게 개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합적 차원에서 ‘지성적’ 행동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사회적 곤충 개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있다. 사회적 곤충의 상호작용은 ‘행동신호(stigmergy)’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어느 한 개체가 움직일 경우 그 흔적이 다른 개체의 행동을 유도하는 추가적인 자극의 근원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거대한 개미집과 같은 협력의 산물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여전히 지역적(local) 차원의 단순한 규칙을 따르지만,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시적 차원의 복잡한 현상이 나타난다. 언뜻 보기에 독립적인 개체의 행동이 다른 개체의 행동에 일련의 연쇄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전체 집단이 마치 하나의 단위체처럼 움직여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		
관점 분류	집단이성	
한 문장 요약	<제시문 5>는 사회적 곤충이 행동신호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들의 복잡한 문제를 집단적 이성에 의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개체와 집단 중 어느 쪽이 지혜로운가’를 기준으로 크게 ‘개체이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집단이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4>는 ‘개체이성’을 지지하는 글로서, 집단적 이성보다는 개인의 이성이 지식의 창조 및 활용, 그리고 문제해결에 적합하다고 본다.
2문단	③	<제시문 1>은 전문가만이 지식을 창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판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
	④	<제시문 2>는 집단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자유의지를 잠식한다고 말하며 개체의 이성을 집단의 이성보다 우위에 둔다.
	⑤	<제시문 4>는 특별히 뛰어난 개인만이 기존의 종교나 도덕의 부조리를 억압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3문단	⑥	<제시문 3>와 <제시문 5>는 ‘집단이성’을 지지하는 글로서, ‘행동신호’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집단이성은 개인들의 ‘제한적 합리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⑦	<제시문 3>은 개인은 제한적 합리성 속에서 살고 있기에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집단은 개인들의 불완전한 지식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⑧	<제시문 5>는 사회적 곤충이 행동신호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신들의 복잡한 문제를 집단적 이성애에 의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

성균관대식 2, 3번 문제 (자료해석형) 공략

1. 문제 유형	
2016 모의 인문 2번 문제	아래 <사례>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시사하는 바를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
2016 모의 인문 3번 문제	아래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상세히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25점)
2015 모의 인문 2번 문제	아래 <자료>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비판하시오.
2015 모의 인문 3번 문제	자료 A와 B를 아래의 <참고 사항>에 근거하여 상세히 해석하고, 그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옹호하시오.
-> 1번 문제만큼의 정형성은 갖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2번, 3번 문제는 하나의 자료를 해석하면 이 해석결과가 1번 문제의 한 입장과 연관되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 입장을 옹호하거나 다른 입장을 비판하도록 요구한다는 정형성이 있습니다.	

2. 전형적 답안 구조 (학교 측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토대로 작성)	
※ 전형적 답안 구조	
1문단	① 자료의 객관적 해석결과를 두괄식으로 나타낼 것 ② 그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 수치로써 나타낼 것
2문단	① 자료해석결과가 1번 문제의 두 입장 중 어떤 입장과 연결되는가를 서술 ② 제시문 1의 핵심어인 'A'를 사용하여 자료와 연결시킬 것. ③ 제시문 2의 핵심어인 'B'를 사용하여 자료와 연결시킬 것. ④ 제시문 3의 핵심어인 'C'를 사용하여 자료와 연결시킬 것 (만약 자료해석결과와 연결되는 입장에 속한 제시문이 2개라면 위의 구조에서 한 문장이 줄어들겠죠?)

3.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쌍둥이?

2번 문제의 자료가 A입장을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면 3번 문제의 자료는 대부분 B입장을 옹호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두십시오. 만약 2번 문제의 자료가 A입장을 옹호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3번 문제에서도 자료가 A입장을 옹호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잘못 푼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균관대의 논술문제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다섯 개의 제시문을 두 입장인 A와 B로 나누도록 요구한 후 2번 문제에서는 A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여주고, 3번 문제에서는 B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여주고, 4번 문제에서는 두 입장이 상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학생이 A입장과 B입장을 선택하여 서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4.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1) 2016 성균관대 모의 인문 2번 문제 (3번 문제와는 쌍둥이!)

1번 문제의 두 입장은 이미 위에서 보았죠?

[문제 2]	아래 <사례>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시사하는 바를 [문제 1]의 한 입장과 연관 지어 서술하십시오.(25점)
---------------	---

<사례>

1968년 잠수함 스킨피온(Scorpion) 침몰 사건 이후 미 해군은 돌발사고로 침몰한 선박 위치 확인을 위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해군 장교 크레이븐(Craven)의 제안에 따라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전략으로 진행되었다. 크레이븐은 수학자, 잠수함 전문가, 인양 전문가, 해류 전문가 등 4명의 전문가들에게 서로 상의하지 말고 침몰 선박 위치에 대해 각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다음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를 활용하여 침몰 선박의 위치를 추정했다.

‘베이즈 정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사건 발생 확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크레이븐이 한 일은 간단히 말해서 침몰 선박 위치에 관한 집단 전체의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었다. 훈련 결과 제시된 수치와 침몰 선박의 실제 위치 사이의 오차는 다음과 같다.

구분		오차
전문가가 각자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한 결과	전문가 A	700m
	전문가 B	980m
	전문가 C	430m
	전문가 D	650m
크레이븐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예측한 결과		200m

1) 자료해석하기 (1문단)	
<p><사례>의 모의 훈련결과는 아무리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일지라도 혼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힘을 합쳤을 때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전문가 A, B, C, D가 각각 계산한 침몰 선박의 위치는 실제 선박의 위치와 각 700m, 980m, 430m, 650m로 평균적으로 690m의 오차가 있었던 반면에 크레이븐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집단적 이성으로써 판단한 결과는 불과 200m의 오차를 보였기 때문이다.</p>	
2) 연결시키기 (2문단)	
<p>이는 [문제 1]의 ‘집단이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연관된다. ‘집단이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써 위의 결과를 판단컨대, 이렇게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제시문 3>에서 말하는 개인들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할지라도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집단은 개인들의 불완전한 지식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크레이븐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제시문 5>에서 말하는 사회적 곤충의 ‘행동신호’라는 메커니즘처럼 판단을 내린 것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p>	
3) 전형적 답안 구조에 따라 답안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료의 객관적 해석결과를 두괄식으로 나타낼 것 ② 그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 수치로써 나타낼 것
1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례>의 모의 훈련결과는 아무리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일지라도 혼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힘을 합쳤을 때 훨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② 왜냐하면 전문가 A, B, C, D가 각각 계산한 침몰 선박의 위치는 실제 선박의 위치와 각 700m, 980m, 430m, 650m로 평균적으로 690m의 오차가 있었던 반면에 크레이븐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집단적 이성으로써 판단한 결과는 불과 200m의 오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2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료해석결과가 1번 문제의 두 입장 중 어떤 입장과 연결되는가를 서술 ② 제시문 1의 핵심어인 ‘A’를 사용하여 자료와 연결시킬 것. ③ 제시문 2의 핵심어인 ‘B’를 사용하여 자료와 연결시킬 것. <p>① 이는 [문제 1]의 ‘집단이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연관된다.</p> <p>② ‘집단이성’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써 위의 결과를 판단컨대, 이렇게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제시문 3>에서 말하는 개인들의 ‘제한적 합리성’ 때문이다. 개인은 자신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할지라도 불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집단은 개인들의 불완전한 지식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있다.</p> <p>③ 크레이븐이 모든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제시문 5>에서 말하는 사회적 곤충의 ‘행동신호’라는 메커니즘처럼 판단을 내린 것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p>

2) 2016 성균관대 모의 인문 3번 문제 (2번 문제와는 쌍둥이!)

1번 문제의 두 입장은 이미 위에서 보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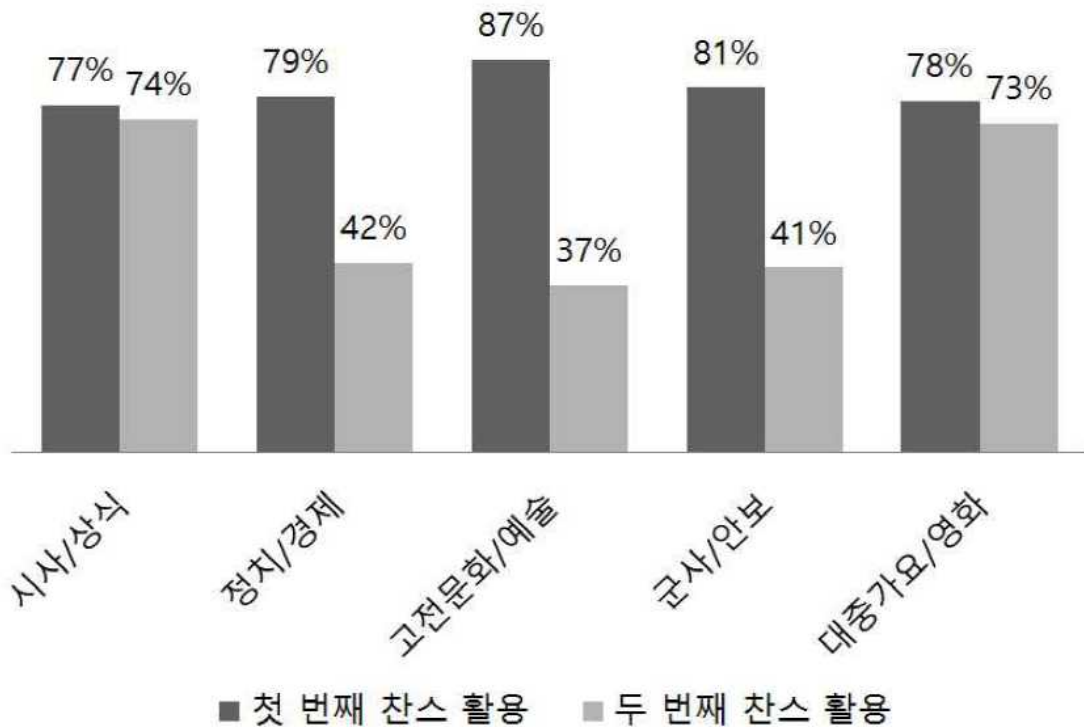
[문제 3]	아래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상세히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옹호하십시오.(25점)
---------------	---

<자료>

생방송 ‘도전! 퀴즈왕’ 프로그램에는 객관식 문제 풀이에서 참가자가 답을 결정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찬스가 있다. 첫 번째 찬스는 참가자가 미리 선택한 사람과 직접 통화하여 힌트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찬스는 일반 시청자들의 ARS 투표 참여 결과를 이용해 힌트를 얻는 것이다. 문제는 다섯 영역에서 출제되는데, 아래의 두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문제 풀이에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찬스를 사용하여 얻은 힌트를 통해 참가자가 정답을 맞힌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규칙1> 참가자는 방송 시작 전 첫 번째 찬스를 사용할 때 통화할 대상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규칙2> ARS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시청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 번 투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방송이 끝난 뒤 정답 여부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시청자가 투표한 답에 투표한 사람들 중 몇 명을 뽑아 선물을 지급한다.



1) 자료해석하기 (1문단)	
<p><규칙 1>을 개체이성, <규칙 2>를 집단이성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파악할 때, <자료>의 현상은 집단이성을 이용한 문제해결의 제한성을 보여주며, 특수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 분야에 정통한 한 개인의 판단을 믿는 것이 더 옳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규칙 2>의 집단이성은 시사/상식, 대중가요/영화 등 상식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73~74%의 꽤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으나, 정치/경제, 고전문화/예술, 군사/안보 등 전문적 분야에서는 약 40%대의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 1>의 개체이성은 시사/상식, 대중가요/영화 등 상식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규칙 2>의 집단이성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음은 물론이고, 정치/경제, 고전문화/예술, 군사/안보 등 전문적 분야에서는 오히려 상식적 수준의 문제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p>	
2) 연결시키기 (2문단)	
<p>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결과는 [문제 1]의 ‘개체이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시문 1>이 전문가만이 지식을 창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판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 것은 위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또, <제시문 2>가 집단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자유의지를 잠식한다고 말한 것처럼 일반 시청자는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선물 때문에 대중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답에 투표를 했을지도 모른다.</p>	
3) 전형적 답안 구조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p>① 자료의 객관적 해석결과를 두괄식으로 나타낼 것</p> <p>② 그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 수치로써 나타낼 것</p>
	<p>① <규칙 1>을 개체이성, <규칙 2>를 집단이성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파악할 때, <자료>의 현상은 집단이성을 이용한 문제해결의 제한성을 보여주며, 특수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그 분야에 정통한 한 개인의 판단을 믿는 것이 더 옳은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p> <p>② 왜냐하면 <규칙 2>의 집단이성은 시사/상식, 대중가요/영화 등 상식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73~74%의 꽤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으나, 정치/경제, 고전문화/예술, 군사/안보 등 전문적 분야에서는 약 40%대의 낮은 정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칙 1>의 개체이성은 시사/상식, 대중가요/영화 등 상식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규칙 2>의 집단이성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보였음은 물론이고, 정치/경제, 고전문화/예술, 군사/안보 등 전문적 분야에서는 오히려 상식적 수준의 문제보다 더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p>

2문단	① 자료해석결과가 1번 문제의 두 입장 중 어떤 입장과 연결되는가를 서술
	② 제시문 1의 핵심어인 'A'를 사용하여 자료와 연결시킬 것.
	③ 제시문 2의 핵심어인 'B'를 사용하여 자료와 연결시킬 것.
	①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결과는 [문제 1]의 '개체이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② 먼저, <제시문 1>이 전문가만이 지식을 창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판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 것은 위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일맥상통한다.
③ 또, <제시문 2>가 집단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자유의지를 잠식한다고 말한 것처럼 일반 시청자는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선물 때문에 대중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답에 투표를 했을지도 모른다.	
※ <제시문 4>는 특별히 뛰어난 개인만이 기존의 종교나 도덕의 부조리를 억압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므로 위 내용과는 큰 관계가 없기에 논거로 사용하지 않았음	

성균관대식 4번 문제 (견해제시형) 공략

1. 문제 유형	
2016 모의 인문	수험생 당신이 '첨단 IT 제품 개발 후 시장 진출을 노리는 CEO'라고 가정하자. 사업 성공을 위한 정보 수집에 아래의 두 가지 참고자료 중 어떤 것이 좋을지 선택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그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15 인문 2교시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보기>의 '생활임금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015 인문 3교시	<보기>는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두 신문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 중 어떤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문제 1]의 제시문들에 나타난 입장에 근거해 제시하시오.
<p style="color: red;">-> 앞에서 살펴본 듯이 성균관대 논술은 하나의 여정입니다. 1번 문제에서 다섯 개의 제시문을 두 입장인 A와 B로 나누도록 요구한 후 2번 문제에서는 A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여주고, 3번 문제에서는 B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여주고, 4번 문제에서는 두 입장이 상충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하여 학생이 A입장과 B입장을 선택하여 서술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자료> 자체의 근거, <자료>와 연결되는 제시문의 핵심어, 기각논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당락이 4번 문제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4번 문제의 답안의 분량이 가장 많아야 하며, 시간 투자 또한 가장 많아야 합니다.</p>	

2. 전형적 답안 원리 (학교 측의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토대로 작성)	
<p>-> 1~3번 문제 풀이와는 달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하는 4번 문제이므로 전형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답안에 들어가면 좋은 일반적 원리들만을 실었으므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진술하면 됨</p> <p>[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모두 들어갈 필요는 없음. 아래의 원리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에 불과]</p>	
원리1	① <자료> 자체의 논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
원리2	① <자료>와 1번 문제의 한 입장과 연결시킬 것 ②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문제의 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달 것 (제시문 1) ③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문제의 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달 것 (제시문 2)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문제의 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달 것 (제시문 3) [제시문 1, 2, 3이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이라고 가정]
원리3	①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시 ② <자료> 자체의 논거를 이용하여 반론을 제기할 것. ③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써 문제의 다른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달 것 (제시문 4)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써 문제의 다른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달 것 (제시문 5)
원리4	① <자료> 자체의 논거에서 나온 반론에 대한 재반론 ② 제시문 4에 의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 ③ 제시문 5에 의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
원리5	① <자료>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더하기

3. 그렇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1) 2016 성균관대 모의 인문 4번 문제	
1번 문제의 두 입장은 이미 위에서 보았죠?	
[문제 4]	수험생 당신이'첨단 IT 제품 개발 후 시장 진출을 노리는 CEO'라고 가정하자. 사업 성공을 위한 정보 수집에 아래의 두 가지 참고자료 중 어떤 것이 좋을지 선택하고,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그 선택을 정당화하십시오.(25점)
<p><참고자료 1 - 위키피디아(Wikipedia)></p> <p>'위키피디아'는 위키를 이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웹 기반의 다언어 백과사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유 콘텐츠 백과사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누구나 참여하여 문서를 수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중립적 시각'에서 사태를 바라보며 다수 의견과 고려될 가치가 있는 소수 의견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반영합니다. 위키피디아의 글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다른 사용자를 존중하며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문서의 내용을 고치고, 옮기고, 바꾸셔도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p> <p><참고자료 2 - 브리태니커(Britannica)></p> <p>1768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출간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중세의 미몽에서 깨어나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섰던 근대 서구인들에게 그때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을 한 곳에 담은 참되고 신뢰할 만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그 뒤 240여 년에 걸쳐 15판까지 판을 거듭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지식을 추가하고, 세계 곳곳의 상세한 정보를 덧붙임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백과사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브리태니커 집필에는 4,000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저자에는 아인슈타인, 마담 퀴리, 러셀 등 세기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세계적 과학 저술가 칼 세이건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p>	
1) 전형적 답안 원리에 따라 답안작성	
<p>'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백과사전이고, '브리태니커'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백과사전이므로 전자는 '집단지성'을 의미하고, 후자는 '개체이성'을 의미한다고 전제할 때 나는 '개체이성'에 기반을 둔 '브리태니커'를 이용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할 것이다.</p> <p>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p> <p>첫째, 특별히 뛰어난 개인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IT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혁신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듯 특별히 뛰어난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p> <p>둘째, 전문가만이 지식을 창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판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위키피디아'는 대중들의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빈약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세계적 석학의 지적수준을 이길 수는 없다.</p> <p>셋째, 집단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수정이 가능</p>	

한 '위키피디아'에 혁신적인 내용을 잠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독창성 때문에 대중의 선호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바로 다른 내용으로 대체될 것이며, '위키피디아'는 이런 식으로 대중의 선호로만 판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다.	
원리1	① <자료> 자체의 논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
	① 나는 '개체이성'에 기반을 둔 '브리태니커'를 이용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정보수집을 할 것이다.
원리2	① <자료>와 1번 문제의 한 입장과 연결시킬 것 ②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문제의 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댈 것 (제시문 1) ③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문제의 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댈 것 (제시문 2)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문제의 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댈 것 (제시문 3) [제시문 1, 2, 3이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이라고 가정]
	①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백과사전이고, '브리태니커'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집필한 백과사전이므로 전자는 '집단이성'을 의미하고, 후자는 '개체이성'을 의미한다고 전제할 때 ②, ③, ④ 첫째, 특별히 뛰어난 개인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문가만이 지식을 창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대중의 판단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셋째, 집단이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원리3 원리4	① 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시 ② <자료> 자체의 논거를 이용하여 반론을 제기할 것. ③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써 문제의 다른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댈 것 (제시문 4) ④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써 문제의 다른 입장에 포함되는 제시문들의 핵심어로서 근거를 댈 것 (제시문 5)
	① <자료> 자체의 논거에서 나온 반론에 대한 재반론 ② 제시문 4에 의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 ③ 제시문 5에 의한 반론에 대한 재반론
	반론과 재반론1
	반론과 재반론2
원리5	'위키피디아'는 대중들의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빈약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세계적 석학의 지적수준을 이길 수는 없다.
	누구나 수정이 가능한 '위키피디아'에 혁신적인 내용을 잠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독창성 때문에 대중의 선호와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바로 다른 내용으로 대체될 것이며, '위키피디아'는 이런 식으로 대중의 선호로만 판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이다.
원리5	① <자료>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더하기
	① IT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혁신은 '애플'의 '스티븐 잡스'가 그러했듯 특별히 뛰어난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후반전 - 적용하기

The 논술	2015 성균관대 인문 1교시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1) 기준설정		
기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행복결정조건 보편주의	VS	행복결정조건 상대주의
<제시문 1>		
칸트는 행복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을 행복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였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마련이고 따라서 어떤 상태를 행복한 상태로 보든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행복의 개념을 보편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았다. 각자의 행복은 각자의 쾌와 불쾌에 대한 특수한 감정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보편타당한 행위의 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복이란 개념이 너무 불확실하여 "모든 인간이 행복을 얻으려고 소망하면서도 자신이 진정 무엇을 소망하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 번도 스스로 확정적이고 일관되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칸트는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행복의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복을 경험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복은 정서적 체험이나 개개인의 윤리적, 정치적 행위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관점 분류	행복결정조건 상대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1>의 칸트는 개인의 경험과 윤리의식, 정치성향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한다.	
<제시문 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은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느낌이 아니라 인간이 그 본질적 기능인 이성적 사고활동을 완성시킬 때에 도달하는 정신적 상태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결국 행복을 얻으려고 행위한다. 행복보다 더 높은 목적은 없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 삶이,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삶들이 모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한 삶이 이성적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점 분류	행복결정조건 보편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을 잘 활용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제시문 3>	
<p>“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요 며칠 동안의 제 생활의 변화를 두구 한 말 같아요. 이 끔찍한 변화를 기적이라구 밖엔 뭐라구 하겠어요.” [예화] 부드러운 소리가 어딘지 먼 하늘에서나 흘러나오는 듯 삼라만상과 구별되어 귓속으로 스며든다. 준보는 고개를 돌리나 먹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의 표정조차 분간할 수 없다. 얼굴이 달명이같이 흰하고 쌍꺼풀진 눈이 포도알 같이 맑은 것은 며칠 동안의 인상으로 그러려니 짐작할 뿐이다. 실과 사권 지 불과 한 주일이 넘을락 말락 할 때다. “그건 꼭 내가 하구 싶은 말요. 지금 신비 속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을 생각이나 해 봤겠수. 그만큼 행복스러워요.” “행복이구 불행이구 사람의 뜻 하나에 달렸지 누가 무엇이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요. 사람의 의지같이 무서운 게 세상에 없는데.” “그 말이 제게 안심과 용기를 줘요.”</p>	
관점 분류	행복결정조건 상대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3>은 행복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
<제시문 4>	
<p>행복의 중심에는 쾌락이 놓여 있다. 행복은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 정서들이다. 이런 정서는 본질적으로 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행복은 생물학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생존, 번식과 같은 본능들과 뒤범벅된 원초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한 일종의 탐지기와 같다. 이 탐지기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경험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신호를 방출하는데, 이 신호는 다양한 종류의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뇌는 뱀, 절벽, 사기꾼, 썩은 음식 같은 것에 두려움이나 역겨움 같은 불쾌의 감정을 유발시켜 “위험하니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빨간 신호등’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다. 반면에 쾌의 감정들은 ‘파란 신호등’이고 행복은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존에 유익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계속 매진하라고 알리는 것이 쾌의 본질적 기능이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진화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쾌감 같은 긍정적 정서의 기능은 인간이 생존이나 번식의 확률을 높이는 환경이나 자원에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쾌와 불쾌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상태이다. 이 중 쾌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생겨난 것이 바로 행복이다.</p>	
관점 분류	행복결정조건 보편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4>는 행복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 쾌락추구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제시문 5>	
<p>닉 부이치치는 팔다리가 없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공을 치고, 컴퓨터도 한다. 닉 부이치치는 말한다. [예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들은 모두 울었고, 아버지는 신음했고, 어머니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닉은 아름답</p>	

<p>다. 신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기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저는 10살 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저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는 내 마음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p>	
관점 분류	행복결정조건 상대주의
한 문장 요약	<제시문 5>의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이 외적 조건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한다.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행복 상대주의'와 '행복 보편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2문단	②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는 '행복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행복은 개인의 경험, 의지, 내면 등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을 달리한다고 본다.
	③ <제시문 1>의 칸트는 개인의 경험과 윤리의식, 정치성향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한다.
	④ <제시문 3>은 행복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
	⑤ <제시문 5>의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이 외적 조건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한다.
3문단	⑥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행복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행복은 이성 혹은 진화의 결과에 의해 보편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⑦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성을 잘 활용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⑧ <제시문 4>는 행복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 쾌락추구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문제 2]	<자료 1>은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시사하는 바를 [문제 1]의 한 제시문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 (25점)
---------------	--

<자료 1>

구분	관찰표본수	*행복감 일치도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69	53%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663	44%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50	13%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715	8%

* 일란성 쌍생아 : 한 개의 수정란에서 태어난 쌍생아. 유전정보가 같기 때문에 동성이며, 체형, 성질, 지능이 매우 유사함.

* 이란성 쌍생아 : 두 개의 난자가 두 개의 정자에 의해 제각기 수정되어 유전정보가 다르게 태어난 쌍생아.

* 행복감 일치도는 쌍생아 간에 행복감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

<자료 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전 정보가 똑같은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생아들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일치정도가 훨씬 높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의 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는 53%로,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인 13%보다 약 4배 더 높다. 둘째,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는 44%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인 8%에 비해 약 5.5배 더 높다.

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

<자료 1>은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이므로, 유전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제시문 4>가 이와 연관된다.

[모두 연결시킬 것이 아니다.]

<제시문 4>

<제시문 4>는 행복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 쾌락추구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에 의하면 행복은 쾌락에 근거한 기쁨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이고, 이러한 정서는 우리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매커니즘은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유전된다고 한다.

<제시문 4>는 행복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 쾌락추구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에 의하면 행복은 쾌락에 근거한 기쁨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이고, 이러한 정서는 우리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 생겨난

<p>다. 그리고 이러한 매커니즘은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유전된다고 한다.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은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료 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자료>1은 쾌감 혹은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유전적 매커니즘이 보편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p>	
<p>3) 답안작성</p>	
<p>1문단</p>	<p><자료 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전 정보가 똑같은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생아들 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일치정도가 훨씬 높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의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는 53%로,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인 13% 보다 약 4배 더 높다. 둘째,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는 44%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의 일치정도인 8%에 비해 약 5.5배 더 높다.</p>
<p>2문단</p>	<p><제시문 4>는 행복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화해온 뇌의 작용에 의한 보편적 쾌락추구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에 의하면 행복은 쾌락에 근거한 기쁨과 즐거움 등의 긍정적 정서이고, 이러한 정서는 우리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했을 때 생겨난다. 그리고 이러한 매커니즘은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유전된다고 한다.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은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료 1>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자료>1은 쾌감 혹은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유전적 매커니즘이 보편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p>

[문제 3] <자료 2>가 보여주는 현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문제 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자료 2>

서울시 자치구	*행복지수	*행복도
자치구 A	86.4	6.6
자치구 B	68.3	3.9
자치구 C	66.4	4.9
자치구 D	63.2	5.5
자치구 E	57.9	1.0
자치구 F	49.1	6.7
자치구 G	48.5	5.9
자치구 H	39.3	6.9

* 행복지수는 소득, 교육, 건강, 환경, 안전, 여가 등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요인들을 통해 구성되었음 (가장 낮음: 0, 가장 높음 : 100)

* 행복도는 각 자치구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행복감을 수치화한 것임. (가장 낮음 : 0, 가장 높음 :10)

1) 자료해석 (두괄식 자료해석의 결과제시 + 구체적 수치로써 근거대기)

<자료 2>는 행복 측정의 객관적 지표인 행복지수와 행복측정의 주관적 지표인 행복도 사이에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행복지수에서 하위권에 있는 자치구인 ‘F’, ‘G’, ‘H’의 행복도가 ‘6.7’, ‘5.9’, ‘6.9’로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자치구인 ‘A’, ‘B’, ‘C’의 행복도인 ‘6.6’, ‘3.9’, ‘4.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

<자료 2>는 행복 측정의 객관적 지표인 행복지수와 행복측정의 주관적 지표인 행복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는 행복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는 행복 상대주의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행복 상대주의에 속하는 제시문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던 것을 가져와서 연결시키기만 하면 된다.

행복상대주의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는 ‘행복 상대주의’를 지지하는 글로서, 행복은 개인의 경험, 의지, 내면 등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을 달리한다고 본다.
<제시문 1>의 칸트는 개인의 경험과 윤리의식, 정치성향에 따라 행복의 조건이 달라진다고 한다.
<제시문 3>은 행복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인마다 그 조건이 다르다고 말한다.
<제시문 5>의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이 외적 조건을 추구하여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하며,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통해 나온다고 주장한다.

<p>이는 소득, 교육, 건강 등 객관적 요인들로 구성된 '행복지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료 2>의 현상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상대주의적 입장에 근거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은 <제시문 1>의 칸트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경험과 윤리의식, 정치성향일수도 있고, <제시문 3>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의지일수도 있으며, <제시문 5>가 말하는 것처럼 내면의 안정과 평화일수도 있다.</p>	
3) 답안작성	
1문단	<p><자료 2>는 행복 측정의 객관적 지표인 행복지수와 행복측정의 주관적 지표인 행복도 사이에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행복지수에서 하위권에 있는 자치구인 'F', 'G', 'H'의 행복도가 '6.7', '5.9', '6.9'로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자치구인 'A', 'B', 'C'의 행복도인 '6.6', '3.9', '4.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p>
2문단	<p>이는 소득, 교육, 건강 등 객관적 요인들로 구성된 '행복지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료 2>의 현상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상대주의적 입장에 근거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은 <제시문 1>의 칸트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경험과 윤리의식, 정치성향일수도 있고, <제시문 3>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의지일수도 있으며, <제시문 5>가 말하는 것처럼 내면의 안정과 평화일수도 있다.</p>

<p>[문제 4]</p>	<p><보기>의 물음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접속 여부)을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선택을 정당화 하시오. (25점)</p>	
<p><보기></p>		
<p>인간의 정서가 뇌의 화학적 균형, 신경전도물질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는 쾌감이나 행복감이 뇌와 몸의 여러 부위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전도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어떤 발명가가 뇌의 부위에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개인이 원하는 행복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체험기계(experience machine)를 발명했다고 가정하다. 이 체험기계에 접속하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실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강렬한 쾌감이나 행복감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이 체험기계에 접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p>		
<p>1) 5개의 제시문이 두 입장으로 나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야!</p>		
<p>이전 논의</p> <p>1)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있다.(보편주의적 입장) <input type="radio"/> <제시문 2> :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한 삶)은 이성적 기능을 완성(발휘)한 상태, 최고선이라고 생각하였다. <input type="radio"/> <제시문 4> :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적 행동의 신호로서 '쾌감'에서 생겨난 (진화과정을 통해) 것이다. (생물학적 쾌락주의)</p> <p>2)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은 없다.(상대주의적 입장) <input type="radio"/> <제시문 1> : 칸트는 행복이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보편타당한 행위의 법칙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input type="radio"/> <제시문 3> : 행복은 사람(개인)의 뜻, 곧 의지에 달렸다. <input type="radio"/> <제시문 5> :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정해진 보편적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p>		
<p>두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p>		
<p><input type="radio"/> 보편주의</p>		
<p><제시문 2></p>	<p>접속 X</p>	<p>체험기계에의 접속을 통한 가상적인 쾌락 체험은 높은 수준의 이성적 기능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p>
<p><제시문 4></p>	<p>접속 O</p>	<p>생물학적 관점에서 행복은 생존에 유리한 정서인 쾌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체험기계는 행복을 만들 수 있다.</p>
<p><input type="radio"/> 상대주의</p>		
<p><제시문 1></p>	<p>접속 X</p>	<p>체험기계는 가상적인 쾌락체험을 통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개인마다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고 보는 상대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체험기계에 접속하는 것으로서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없다.</p>
<p><제시문 3></p>		
<p><제시문 5></p>		

2) 답안 작성	
1문단	<p>행복보편주의 입장에서는 접속하는 경우와 접속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먼저, 높은 수준의 이성적 기능의 실현을 행복의 보편적 조건으로 파악하는 <제시문 2>는 가상적 쾌락체험은 높은 수준의 이성적 기능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4>는 행복을 생물학적 관점으로 파악하여 행복이 생존에 유리한 정서인 쾌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체험기계에 접속하여 가상적 쾌락을 얻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볼 것이다.</p>
2문단	<p>행복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제시문에 근거하더라도 체험기계에 접속하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이다. 행복 상대주의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인데, 체험기계는 가상적 쾌락을 통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행복 상대주의의 관점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p>

The 논술	2015 성균관대 인문 2고시
---------------	-------------------------

[문제 1]	<p><제시문 1> - <제시문 5>는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p>
발문만 보고서는 두 입장을 알 수 없다!	
<제시문 1>	
<p>특정 지위나 일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지위나 일보다 더 중요한 특별한 지위나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회의 특징이다. 이런 중요한 지위나 일을 더 유능한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결국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발생한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1>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재화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빈곤을 사회 발전의 요소로 파악한다.</p>
<제시문 2>	
<p>오늘날의 정보통신사회는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 시대에는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이 부의 축적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인이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틀에 박힌 관념에 빠져서 정보, 인터넷 시대의 노동이 전혀 노동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것에 만족하고 안주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은 얻겠지만 물질적 성공과 안정을 확보할 수는 없다. 앞으로는 주로 창의력과 아이디어 경쟁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근면한 사람이라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날카로운 직관을 발휘하여 민첩하게 적응하지 못할 때는 그저 평범한 저소득자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2>는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정보의 가공과 유통에 있어서의 독창성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
<제시문 3>	
<p>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누구도 혼자 힘과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에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제체제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오래 전부터 성공할 확률이 누구나 똑같은 공정한 사회라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통계 자료들은 정반대 사실을 보여준다. 빈곤층이나 중산층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면, 미국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보다 더 낮다. 게다가 미국사회의 불평등은 경제를 악화시켜서, 결국 빈곤층을 고착화시키고 계층갈등을 심화시킨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3>은 흔히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이 오히려 계급 이동 가능성이 낮은 국가임을 지적하며 빈곤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p>

<제시문 4>			
<p>노예가 허용되지 않는 자유 국가에서는 부지런한 가난뱅이가 많을수록 부를 획득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유리하다. 이들이 공장과 군대를 확실하게 채워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이 없으면 우리가 누릴 것도 없게 되며 우리가 소유한 것의 소중함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쁜 환경에서도 사회가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면 반드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식할 뿐 아니라 가난해야 한다. 지식은 우리 욕망을 키우고 늘리는 법이며, 사람은 적게 바랄수록 필요한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나라와 왕국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일하는 가난뱅이들의 지식을 현재 하고 있는 일 수준에 머무르게 해야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양치기나 밭가는 농사꾼이 자기와 관계없는 일이나 세상일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일의 피곤함과 어려움을 즐겁고 기쁘게 견디어내기 힘들게 된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4>는 빈곤층의 지식과 정보를 제한하여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불만을 느끼지 않고 일하도록 해야 나라가 유지된다고 한다.</p>		
<제시문 5>			
<p>현대의 경제성장과 지식의 확산 덕분에 마르크스가 예견한 종말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자본증식의 성격과 불평등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낙관론이 지배했던 수십 년 동안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자본의 수익률이 생산과 소득의 성장률을 넘어설 때 자본주의는 견딜 수 없는 불평등과 빈곤을 자동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19세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21세기에 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불평등과 빈곤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능력주의적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침식한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5>는 수정자본주의 또한 자본주의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빈곤과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p>		
1) 기준설정			
기준	사회현상(빈곤)을 바라보는 관점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기능론	VS	갈등론
※ Tip			
	기능론		갈등론
개요와 관점	<p>사회의 구성요소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의 유지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함.</p>		<p>사회의 구성요소들은 희소가치를 둘러싼 갈등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사회변동에 기여함.</p>
구성요소의 역할	<p>사회구성원들의 합의와 계약에 의해 기능과 역할이 배분됨.</p>		<p>사회구성요소들의 기능과 역할 및 행동양식은 특정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이를 강제와 억압을 통해 기정 사실화하려함.</p>
강조점	<p>현상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결속시키는 것. 기득권층의 이익을 중시.</p>		<p>현재의 사회를 변화시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중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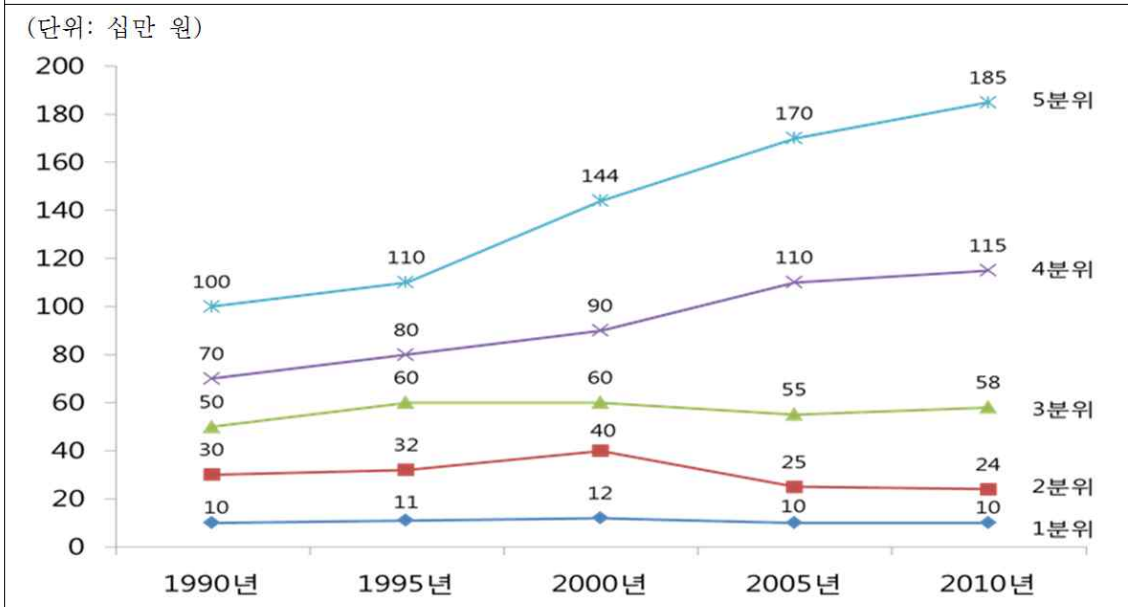
한계	기득권층의 권력유지에 기여. 사회변동이나 개혁을 소홀히 함.	협동과 조화를 경시. 갈등의 해결에만 매달리다보니 존속 과 통합을 소홀히 함.
사회화의 의미	다양한 개인의 행동을 조정과 통합하 는 과정.	기득권층의 문화를 전수하여 사회구 조를 재생산함으로써 지배체제를 공 고히 하는 것.
사회화의 기능	개인을 사회에 적응, 통합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	기득권층을 옹호하여 현상을 유지하 고 강화시키는 것.
사회화의 내용	개인과 사회의 합의에 따라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	권력과 자원을 가진 기득권층의 이익 을 옹호하고 피지배층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것.
집단	보수계열	진보계열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제시문 1>~<제시문 5>는 ‘빈곤이라는 하나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을 기준으로 크게 ‘갈등론’과 ‘기능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제시문 1>, <제시문 2>, <제시문 4>는 ‘기능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글로 서, 빈곤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여, 빈곤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긍정적 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2문단	③	<제시문 1>은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회 구성원에게 재화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빈곤을 사회 발전의 요소로 파악한다.
	④	<제시문 2>는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정보의 가공과 유통에 있어서 의 독창성 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⑤	<제시문 4>는 빈곤층의 지식과 정보를 제한하여 그들이 그들의 업무에 불 만을 느끼지 않고 일하도록 해야 나라가 유지된다고 한다.
3문단	⑥	<제시문 3>와 <제시문 5>는 ‘갈등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글로서, 빈곤과 불 평등이 계급이나 계층 사이의 고착화된 구조적 갈등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 는 측면에 주목하여, 빈곤 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 다고 본다.
	⑦	<제시문 3>은 흔히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이 오히려 계급 이동 가능성 이 낮은 국가임을 지적하며 빈곤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닌 구 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⑧	<제시문 5>는 수정자본주의 또한 자본주의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빈곤과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 고 주장한다.

[문제 2]	<p><자료> 1은 일정기간 동안의 소득계층 간 사회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 (25점)</p>		
<자료 1>			
구분	전체	교육수준	
		대학교 졸업 미만	대학교 졸업 이상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 (%)	28.8	7.2	38.9
중산층을 유지한 비율 (%)	21.4	18.8	22.6
빈곤층을 유지한 비율 (%)	29.6	62.4	16.5
상류층에서 빈곤층으로 이동한 비율 (%)	9.0	7.6	9.5
빈곤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 (%)	11.2	4.0	12.5
전체 (%)	100.0	100.0	100.0
<p>*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 (%) : 전체 조사대상자 중 조사기간 동안 상류층에 지속적으로 머문 대상자의 비율</p>			
1) 자료해석하기 (구체적 수치를 간략하게 제시할 것 - 성균관대 채점기준)			
<p><자료 1>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류층을 유지하거나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층을 유지한 비율이 높았고 빈곤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낮았다. 대졸미만 상류층이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이 7.2%인데 반해 대졸이상 상류층이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이 38.9%였고, 대졸미만 빈곤층이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4.0%인데 반해 대졸이상 빈곤층이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12.5%였기 때문이다.</p>			
2)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갈등론'을 옹호하기			
<p><자료 1>의 해석결과로써 갈등론을 다음과 같이 옹호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 유지율과 이동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의 분배구조가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계층 불평등의 고착화는 불평등이 유지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회체제 또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한다. 넷째, 계층불평등 문제는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p>			
3)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능론'을 옹호하기			
<p><자료 1>의 해석결과로써 기능론을 다음과 같이 옹호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류층을 유지하거나 상류층으로 이동할 비율이 높다는 점은 교육에 투자할 동기부여를 높이고 이는 곧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 유지율과 이동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결과이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 유지 및 이동의 결과는 개인 책임성 강조, 사회질서의 유지 등의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p>			

5) 답안작성	
1문단	<p><자료 1>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류층을 유지하거나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층을 유지한 비율이 높았고 빈곤층에서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낮았다. 대졸미만 상류층이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이 7.2%인데 반해 대졸이상 상류층이 상류층을 유지한 비율이 38.9%였고, 대졸미만 빈곤층이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4.0%인데 반해 대졸이상 빈곤층이 상류층으로 이동한 비율이 12.5%였기 때문이다.</p>
2문단	<p><자료 1>의 해석결과로써 갈등론을 다음과 같이 옹호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에 따라 계층 유지율과 이동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의 분배구조가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고착화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은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계층 불평등의 고착화는 불평등이 유지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회체제 또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한다. 넷째, 계층불평등 문제는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p>
3문단	<p><자료 1>의 해석결과로써 기능론을 다음과 같이 옹호할 수 있다.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류층을 유지하거나 상류층으로 이동할 비율이 높다는 점은 교육에 투자할 동기부여를 높이고 이는 곧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둘째,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 유지율과 이동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차별적 보상의 결과이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 유지 및 이동의 결과는 개인 책임성 강조, 사회질서의 유지 등의 긍정적 기능을 가진다.</p>

[문제 3] 한 국가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을 들 수 있다. <자료 2>에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 추세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 1]의 <제시문 5> 입장에서 이 추세를 평가하시오. (25점)

<자료 2>



- * 각 선은 한 국가의 소득5분위별 월평균소득(실질소득)을 나타냄(소득5분위란 소득수준을 20% 단위로 5구간으로 나눈 것으로, 5분위는 최상위 20%, 1분위는 최하위 20%를 나타냄)
- * 각 분위에 속하는 가구들은 모두 동일하게 해당 분위의 평균소득을 가진다고 가정할 것
- * 절대적 빈곤율 :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서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본 자료에서는 3분위 평균소득과 동일함)
- * 소득5분위 배율 : 5분위 평균소득 ÷ 1분위 평균소득

1) 자료해석

① 절대적 빈곤률은 20%로 일정하다.

-> 절대적 빈곤률이란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래프에서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1분위밖에 없다. (1분위는 전체 중 20%에 해당)

② 상대적 빈곤률은 1990년 ~ 2000년 20%에서 2005년 ~ 2010년 40%로 증가했다.			
-> 상대적 빈곤률이란 3분위 평균 소득의 50%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3분위 평균소득 50%	1분위 평균소득	2분위 평균소득
1990년	250	100	300
1995년	300	110	320
2000년	300	120	400
2005년	275	100	250
2010년	290	100	240
③ 소득 5분위배율은 10%에서 18.5%로 점진적 증가			
-> 1990년 10%, 1995년 10%, 2000년 12%, 2005년 17%, 2010년 18.5%			
* 절대적 빈곤률은 일정하지만 상대적 빈곤률 및 소득 5분위 배율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추세를 파악하는 팁 - 처음과 끝]			
2) 이전 논의에 자료해석형 문제를 연결시키기			
<제시문 5>는 ‘갈등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글로서, 빈곤과 불평등이 계급이나 계층 사이의 고착화된 구조적 갈등의 불가피한 부산물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빈곤 계층에 속하는 개인들은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을 거치지 않고서는 개인적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서 수정자본주의 또한 자본주의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빈곤과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3) 답안작성			
1문단	<자료 2>는 절대적 빈곤률은 일정하지만, 상대적 빈곤률 및 소득 5분위배율로 나타난 경제적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절대적 빈곤률은 20%로 일정했다. 절대적 빈곤률이란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래프에서 월 1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1분위밖에 없다.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률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는 20%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40%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률이란 3분위 평균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1분위만이 3분위 평균 소득의 50%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1, 2분위가 모두 3분위 평균 소득의 50%미만의 소득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은 1990년 10%에서 2010년 18.5%로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문단	<제시문 5>는 ‘갈등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글로서, 수정자본주의 또한 자본주의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빈곤과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위 추세를 볼 때, 통계자료에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추세는 빈곤층이 고착화되고 계층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사회의 분배제도가 지배집단인 상위계층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보기>의 '생활임금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5점)
<보기>	
<p>우리나라는 헌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기본적, 인간적 생활을 누리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래서 A시는 최근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재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A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보다 130% 가량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영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A시는 내년 시와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한 뒤 2017년부터 용역 및 위탁 민간업체까지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p>	
1) 답안작성 (찬성 측)	
1문단	<p>'생활임금제'에 대해 찬성한다. 기능론적 관점에서 볼 때 '생활임금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의 130%로는 인간다운 생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빈곤 극복의 노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지만, 빈곤층의 사정을 조금만 나아지게 만들어 적극적 저항의지를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필수적인 빈곤층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의 130%가 기본적, 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므로 실업자와 시간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하게 된다는 순기능 또한 있기 때문이다.</p>
2문단	<p>갈등론적 관점에서도 '생활임금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데, '생활임금제'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어 불평등의 정도를 상당 정도 완화시키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p>
2) 답안작성 (반대 측)	
1문단	<p>'생활임금제'에 대해 반대한다. 먼저 기능론적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의 130%는 기본적, 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없는 수준이므로 실업자나 시간제 근로자들의 적극적 구직 노력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최저임금의 130%가 충분한 수준이라서 인간적 생활이 보장되고 다른 계층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상위계층으로 이동할 동기부여가 약화되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이 약해진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p>
2문단	<p>그리고 갈등론적 관점에서도 '생활임금제'는 부정적 평가를 면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의 130%로는 인간다운 생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감소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둘째, 최저임금의 130%가 충분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만 혜택을 받지 빈곤의 주요 당사자인 실업자나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되니 이 재원을 직업 없는 빈곤층을 우선 지원하는 데에 써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는 구조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며, 저소득층의 저항만 약화시켜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기 때문이다.</p>

The 논술	2015 성균관대 인문 3고시
--------	------------------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5>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25점)
발문만 보고서는 두 입장을 알 수 없다!	
<제시문 1>	
<p>로크는 ‘관용론’에서 국가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하고 둘 사이의 경계가 제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영혼의 구원과 국가의 안녕을 걱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오로지 세속적 재산, 즉 생명, 건강, 토지, 논 등과 같은 것들을 지키고 증식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정당한 소유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공평하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모든 개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한편 종교는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가에 속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 이로부터 로크는 특정 종교가 정치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교리를 강제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이원론은 종교 간의 갈등이 첨예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 내 다양한 가치들의 상호 관용과 공존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설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사회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에서 로크의 사고는 다른 측면에서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법률의 권위와 처벌의 강제력으로 종교의 내용과 업무, 활동방식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를 위촉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1>은 국가 또는 정부가 종교의 내용이나 활동방식 등에 개입하면 종교 활동을 위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제시문 2>	
<p>오직 하나의 가치만을 인정하여 모든 가치를 그것에 비추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을 ‘가치 일원주의’라고 부른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원주의에 맞서는 이 입장은 하나의 가치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치 일원주의가 개인에게 내면화할 때 그는 독선과 아집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상대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주입하려 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 일원주의는 의견 충돌을 발생시키고 다양성을 훼손하여 결국에는 타인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가치 일원주의가 국가와 사회 전체에 확산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만약, 사회가 가치 일원주의에 빠지면 그 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 문제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종교는 태생적으로 가치 일원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타성이 내가 나의 신을 믿는 차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신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면 공격이 된다. 국가는 가치일원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p>	
한 문장 요약	<제시문 2>는 종교가 태생적으로 ‘가치 일원주의적’이므로 타 종교를 부정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시문 3>	
<p>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과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종교활동의 자유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토지이용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미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종교단체의 소송이 많았다. 미국의 ‘종교자유회복법’과 ‘종교적 토지이용 및 수감자법’에서는 정부가 종교활동 규제와 무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위 두 법은 정부의 종교활동 제한을 금지하고,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핵심적인 헌법가치와 관련된 공익을 보호하는 경우로 엄격히 국한하고 있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3>은 종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는 정부의 규제나 개입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나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제시문 4>	
<p>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다른 자유와 충돌하거나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낙태를 둘러싸고 이를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트위킨은 종교의 자유를 ‘특별한 권리’의 목록에서 제외하여 ‘일반적 권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여기서 ‘특별한 권리’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같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결코 제한될 수 없는 자유에 관한 권리이다. 반면 ‘일반적 권리’란 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실제로 정부는 일반 공중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보편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한다. 마약의 거래와 소비를 금지한다거나 국립공원의 벌목을 금지하는 것 혹은 세금을 걷고 분배에 개입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만일 우리가 종교적 활동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일반적 권리의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종교 역시 평등과 합리에 근거한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4>의 트위킨은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결코 제한될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이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 또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제시문 5>	
<p>내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보호이다. 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는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위해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나보다 강한 주먹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다. 나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나는 국가가 나의 행동의 자유 중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를테면,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국가는 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공격할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가치의 영역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시민들 간의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나의 종교와 세계관을 존중받고자 한다. 그만큼 나 역시 다른 종교와 세계관을 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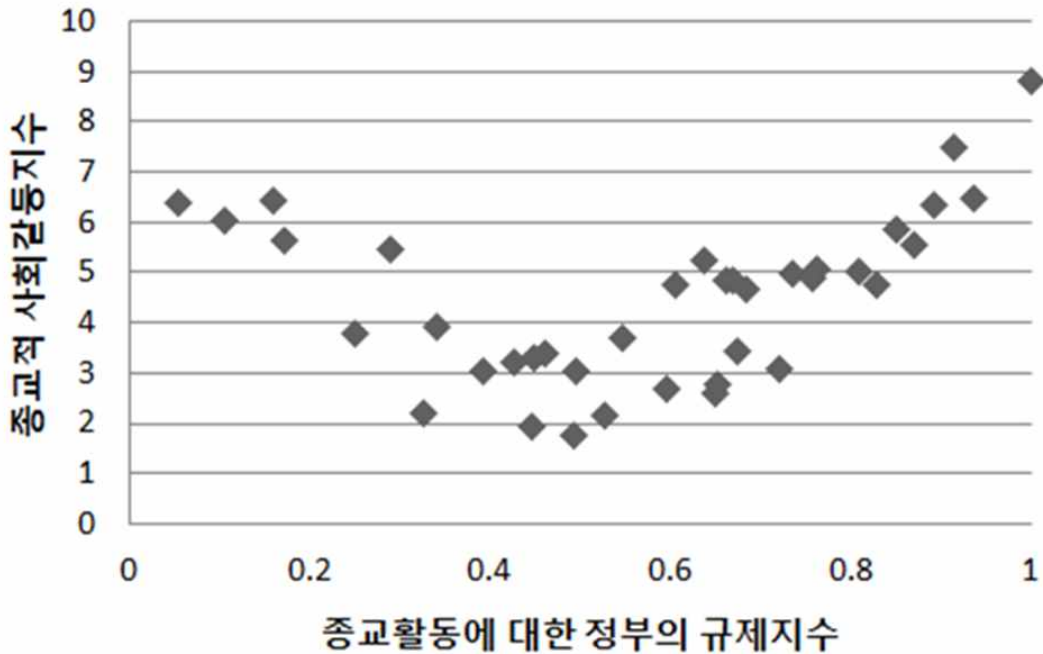
<p>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 제약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불관용의 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 정신 그 자체가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p>			
한 문장 요약	<p><제시문 5>은 자신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주어야 하며, 따라서 종교 활동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은 부적절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1) 기존설정			
기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2) 기준에 따라 대립되는 관점 설정			
	필요하다	VS	불필요하다
3) 정해진 개요에 따라 답안작성			
1문단	①	<p><제시문 1>~<제시문 5>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크게 ‘공익을 위하여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p>	
2문단	②	<p><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는 ‘공익을 위하여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글로서, ‘가치 일원주의적’인 종교는 ‘일반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자신과 타인의 종교와 세계관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p>	
	③	<p><제시문 2>는 종교가 태생적으로 ‘가치 일원주의적’이므로 타 종교를 부정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p>	
	④	<p><제시문 4>의 트위킨은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서 결코 제한될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이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 또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p>	
	⑤	<p><제시문 5>은 자신의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주어야 하며, 따라서 종교 활동에 대한 무제한의 ‘관용’은 부적절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3문단	⑥	<p><제시문 1>, <제시문 3>은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글로서, 국가나 정부는 종교와 독립적이며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p>	
	⑦	<p><제시문 1>은 국가 또는 정부가 종교의 내용이나 활동방식 등에 개입하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p>	
	⑧	<p><제시문 3>은 종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는 정부의 규제나 개입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나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	

[문제 2]	<p>A학교는 2011년부터 학내 종교동아리의 선교 전단지 배포와 같은 교내 선교활동을 금지해왔다. 반면 B학교와 C학교는 교내 선교활동을 계속 허용해왔다. 해당 학교들이 속해있는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고 있다. <표>는 A, B, C학교 학생들의 타 종교 호감도 변화추이를 나타낸다. <표>의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장을 지지하시오. (25점)</p>				
<p><표> 연도별 타 종교 호감도 지수 추이</p>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A학교	51	50	49	50	49
B학교	46	43	40	36	31
C학교	52	48	43	39	35
<p>*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고, 숫자가 클수록 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함.</p>					
2) 자료해석하기					
<p><표>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A, B, C 세 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표>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내 타 종교 호감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학교는 51에서 49로, B학교는 46에서 40으로, C학교는 52에서 43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타 종교 호감도 감소 현상은 학교 내의 종교관련 갈등 증가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학교는 2011년부터 교내 선교활동을 금지하였고, 2011년 이후 A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2013년에도 49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교내 선교활동이 허용된 B와 C학교에서는 타 종교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 B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는 31, C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는 35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 없이 종교 활동이 보장되는 경우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p>					
3)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종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옹호하기					
<p><표>의 내용은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를 방지하여 종교간 갈등 심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종교 활동의 자유 또한 '일반적 권리'이므로 종교의 '가치 일원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학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타종교에 대한 '불관용', 즉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현상으로부터 타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적인 학내 종교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p>					
4) 답안작성					
1문단	<p><표>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A, B, C 세 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 변화 추세를 보여준다. <표>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내 타 종교 호감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타 종교 호감도 감소 현상은 학교 내의 종교관련 갈등 증가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학교는 2011년부터 교내 선교활동을 금지하였고, 2011년 이후 A학교의 타 종교 호감도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교내 선교활동이</p>				

	<p>허용된 B와 C학교에서는 타 종교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규제 없이 종교 활동이 보장되는 경우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p>
<p>2문단</p>	<p><표>의 내용은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를 방지하여 종교간 갈등 심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 신념을 전파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종교 활동의 자유 또한 ‘일반적 권리’이므로 종교의 ‘가치 일원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학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을 제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타종교에 대한 ‘불관용’, 즉 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감소현상으로부터 타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적인 학내 종교 활동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p>

[문제 3] 아래의 <자료>가 보여주는 현상을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채택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자료>



*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지수: 종교활동에 대한 각 국가의 규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 종교적 사회갈등지수: 각 국가 구성원들 간 종교관련 갈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갈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1) 자료해석하기

<자료>는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종교관련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정부의 종교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종교관련 사회갈등이 커지고,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간 정도의 수준일 때 종교관련 사회갈등이 가장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가 0~0.2와 0.8~1.0일 때 종교적 사회갈등 지수는 5~9로 비교적 높으며, 정부의 규제가 0.4~0.6일 때 종교적 사회갈등 지수는 2~4로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2) '종교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설명하기

<자료>에 나타난 현상에 근거해볼 때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적대감 해소 및 갈등 방지 등 공익을 위해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높은 수준의 규제는 오히려 규제가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은 종교적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종교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3) 답안작성	
1문단	<p><자료>는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종교관련 사회갈등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정부의 종교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종교관련 사회갈등이 커지고,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간 정도의 수준일 때 종교관련 사회갈등이 가장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가 0~0.2와 0.8~1.0일 때 종교적 사회갈등 지수는 5~9로 비교적 높으며, 정부의 규제가 0.4~0.6일 때 종교적 사회갈등 지수는 2~4로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p>
2문단	<p><자료>에 나타난 현상에 근거해볼 때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적대감 해소 및 갈등 방지 등 공익을 위해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시문 2>, <제시문 4>, <제시문 5>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높은 수준의 규제는 오히려 규제가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은 종교적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 기본적 종교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p>

<p>[문제 4]</p>	<p><보기>는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두 신문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 중 어떤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문제 1]의 제시문들에 나타난 입장에 근거해 제시하시오. (25점)</p>
<p><보기></p>	
<p>뉴욕 주 그리스 시에서 타운홀 미팅(공개주민회의)을 할 때 기도를 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2014년 5월 5일자 판결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결정을 지지한 월스트리트저널은 타운홀 미팅에서의 기도는 미국의 역사적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성직자를 초대해 기도하는 것을 불편하다면서 고소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뉴욕타임즈는 연방대법원이 종교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리스 시 일부 주민을 소외시킬 수도 있는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p>	
<p>1) 답안작성 (월스트리트 저널과 같은 입장에서)</p>	
<p>1문단</p>	<p>타운홀 미팅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전통으로서 그 자체를 정치의 종교중립과 가치 다원성에 대한 침해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이러한 전통을 규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국가가 종교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셈이 될 것이다. 국가 또는 정부가 종교의 내용이나 활동방식 등에 개입하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정부는 종교에 개입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나 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핵심적인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p>
<p>2) 답안작성 (뉴욕타임즈와 같은 입장에서)</p>	
<p>1문단</p>	<p>타운홀 미팅은 종교가 아닌 시정 관련 행사로서 여기에 특정 종교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정치의 종교중립을 위배하고 하나의 종교 가치에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가치다원성을 해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타운홀 미팅의 기도가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종교는 태생적으로 ‘가치 일원주의적’이므로 타 종교를 부정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며, 공익을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이므로 종교 활동의 자유 또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제한의 ‘관용’은 부적절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p>